

농산물 수급관리 비상대응체제 유지

수도권 집중호우 인한 수급 불안 등에 대비 농식품부, 상황점검 회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 등에 대비해 배추, 무, 감자, 사과, 배 등을 중심으로 수급관리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비상대응체제와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확인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8일부터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에 최고 500mm의 비가 내렸다. 현재까지 농업분야 피해는 농작물 222ha가 물에 잠기고, 가축 2만533마리, 꿀벌 660군이 폐사했다. 비닐하우스 0.1ha, 농경지 23ha도 유실·매몰된 것으로 집계됐다.

내린 비의 양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농축산물 피해는 크지 않지만 중부권 주요 품목인 배추, 무, 감자, 사과, 배 등을 중심으로 수급관리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성수기 수급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집중호우 대비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이다. 많은 비가 내린 뒤 노지채소에서는 무름병(배추·무), 탄저병(고추) 등 병해충 발생하고, 침수에 따른 뿌리 활력 저하로 생리장해가 우려된다. 시설채소는 생육지연·착과불량 등 생육 장애, 과수는 탄저병·갈반병, 뿌리 활력 저하로 생리장해, 인삼은 잿빛곰팡이병·탄저병 등 2차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배추, 무, 감자는 강원도 고지대(400m 이상) 경사지에 위치해 호우

로 인한 침수보다 이후 병해와 생리장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과와 배는 강풍에 의한 낙과, 강우 이후 병충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지자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노지채소 작황 관리팀과 과수·시설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피해상황을 점검한다.

지난 7일 기상청 예보 이후 현재까지 본부 및 산하·관계 기관은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호우피해 예방요령을 문자로 발송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농산물 수급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모든 농업기관은 집중호우 종료 시까지 현 비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농업인들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중기중앙회·신보, 청년 일자리 제공 플랫폼 연계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청년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플랫폼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기중앙회와 신보는 일자리 플랫폼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협력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지난 협약의 일환이다.

이들은 일자리 플랫폼 간 채용공고 DB(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 일자리를 함께 발굴하고 다양한 채용정보를 한눈에 제공을 위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청년 구직자들은 중기중앙회의 '참관청은 중소기업'에서 정부·지자체의 인증을 받은 우수 중소기업의 다양한 일자리정보와 '신보ON·Biz 잡플라우드'에 등록된 채용공고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뉴시스

식량작물 종자 경쟁력 향상 위해 국립종자원·식량과학원 우량종자 생산 등 '맞손'

국립종자원은 최근 국립식량과학원과 우리나라 식량 작물 종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와 벼, 보리, 밀, 콩 등 주요 식량작물 종자를 생산에 공급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식량작물의 품종 개량 및 재배법 개선 등에 대한 시험 연구와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두 기관은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인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신품종 육성, 품종보호 등록, 우량종자 생산·공급 등 식량작물 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협력해



국립종자원은 최근 국립식량과학원과 우리나라 식량 작물 종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나가고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및 품종보호 관련 업무 협력 △국기보종 종자의 생산관리 및 검사가 관한 사항 △디지털 기술 기반의 종자 검정 기술 개발 협력 △고품질 보급종 생산을 위한 교육·컨설팅·

홍보 지원 △기타 협력사업 등이다.

김기훈 국립종자원장은 "국제적 경쟁력 제위 및 전경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작물 종자의 경쟁력을 높여 농업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지역 농민·농촌 발전방향 모색

정읍시 농축협, 민주 윤준병 의원과 농정간담회

농협 정읍시지부(지부장 이재연)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관내 농·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 농업인·농촌·농협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농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쌀값 하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감면 연장의 필요성과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방법 등 많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흥사랑기부제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제공 및 기금운용, 쌀시장격리 문제에 대한 지역의 어려움 등 농촌에 산재해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전북 쌀 소비촉진에 함께하기로 다짐했다.

이재연 지부장은 "의정활동으로 농업인·농촌·농협 발전에 힘써 주시는 윤준병의원님과 관내 조합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간담회는 현안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농협은 농업인을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격려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하반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오늘 나온 현안 뿐만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언제나 좋은 선물 '전북의 농축산물'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 전북농협, 답례품 준비 나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전북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공급 활성화를 통해 전북 농업인의 실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농협은 150여개 도내 농축산물 홍보를 위해 농축산물의 특징, 지역명소, 포장재 등을 활용한 전자북 제작·배부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온 국민대상 맞춤형 홍보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지부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업인에게

최대의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위한 농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도내 농축협에서는 지난달 농협전북본부에서 제작·배포한 답례품 사업 매뉴얼을 토대로 원활한 답례품 공급 역할 수행을 위해 법적 제약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온라인을 통한 답례품 공급, 농축산물 상품화 및 배송체계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자세로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